

## 02 | 만동묘와 대보단

1 송시열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보낸 명나라 신종과 그 마지막 황제인 의종의 제사를 거행하고자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하는 스승의 유언(遺命)을 이어받아 괴산군 청천면에 만동묘(萬東廟)를 만들고 매년 두 황제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만동묘라는 명칭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암(朝宗巖)에 새겨진 선조의 어필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글자의 처음과 끝 자를 딴 것이다. '만절필동'이라는 글자에는 황하가 여러 번 굽이쳐도 결국은 동쪽으로 나아가 황해로 흘러 들어가듯이, 조선 역시 어떠한 상황에도 명이 원병을 보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의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 해설

- 1문단에서는 '신종'과 '의종'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신종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의 왕이고, 의종은 명나라의 마지막 왕이다.
- 만동묘에서는 신종과 의종에 대한 제사를 지냈고,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본문과 같다.

2 창덕궁 후원에 있는 대보단(大報壇)도 명 신종을 제사 지내기 위해 건립된 제단이다. 대보단의 제례(제사의례)는 국왕이 직접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때 사용하는 제물과 기구는 문묘 제례(공자와 맹자에 대한 제사) 때 쓰던 것과 같았다. 영조 25년부터 이 대보단에서 명나라의 태조와 그 마지막 황제 의종도 함께 매년 제사 지내기 시작했다. 영조는 중앙 관료들로 하여금 빠짐없이 대보단 제례에 참석하도록 했는데, 정조는 이를 고쳐 제례 집행자만 참례하게 했다. 그렇지만 영조의 전례에 따라 대보단에 자주 행차하여 돌아보는 등 큰 관심을 표명했다.

## 해설

- 1문단에 '만동묘'가 나왔는데, 2문단에는 '대보단'이 나왔다.
- 만동묘와 대보단을 구별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이다. 다만 이 둘을 정확하게 구별하려면, 1문단에서 이미 '신종'과 '의종'을 제대로 구분했어야 했다.
- 대보단은 처음에는 신종에 대한 제사를, 영조25년부터는 신종+의종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 영조 때 → 정조 때의 변화도 파악해야 한다. (참석자의 변화)

3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는 명이 망한 뒤에 중화의 정통을 이은 나라가 조선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대보단 제례는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만동묘를 중시하는 분위기도 확산되었다. 만동묘에서 명 황제들에 대한 제사를 지낼 무렵이 되면 전국의 유생이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이로 인해 제사 비용은 날로 많아졌다. 이 소식을 들은 영조는 만동묘에 전답을 하사하여 제사 비용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었다. 헌종 때에는 만동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충청도 관찰사가 참석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만동묘는 이처럼 위상이 높았지만, 운영비 조달을 핑계로 양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등 폐해가 컸다.

## 해설

- 영조 때, 헌종 때의 만동묘의 변화를 파악하자.

- 4 만동묘를 싫어하던 흥선대원군은 대보단에서 거행하는 것과 같은 제사를 만동묘에서 또 지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한 이유에서 그는 만동묘가 설립될 때부터 매년 지내오던 제사를 폐지하였다. 또 명 황제들의 신주를 만동묘에서 대보단으로 옮겼다. 흥선대원군이 실각한 후 만동묘 제사는 부활되었지만 순종 황제 재위 때 다시 철폐되었다.

#### 해설

- 만동묘와 관련된 흥선 대원군 때의 변화와, 흥선 대원군 실각 이후의 변화, 순종 황제 때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 02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 정답 해설

- ④ (O) 정조는 영조 이후의 왕이다(배경지식). 만동묘에서는 처음부터 신종과 의종에 대한 제사를 지냈고, 대보단에서는 영조25년 이후부터 신종+의종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 오답 해설

- ① (X) 영조는 만동묘를 없애지 않았다.  
 ② (X) 2문단의 '대보단'에서 제사를 직접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만동묘에 대해서는 제시된 적 없다.  
 ③ (X) '만동묘'에 대한 설명이다.  
 ⑤ (X) 선조의 어필 '만절필동(萬折必東)'은 만동묘의 건립을 기념하기 위해 내린 것이 아니라, 조선이 명나라가 원병을 보내줬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는 글귀이다.

## 07 | 동물감정론과 동물권리론

1 동물은 쾌락, 고통 등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그들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물감정론**이다. 한편 ㉡**동물권리론**에 따르면 동물도 생명권, 고통받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닌 존재인 만큼 그들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하지만 동물도 윤리적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두 이론을 극단적으로 전개하면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포식에 관련한 비판은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대표적인 입장이다.

## 해설

- ㉠ : 동물도 감정을 지녔으므로 윤리적으로 대우하자!
- ㉡ : 동물도 권리를 지녔으므로 윤리적으로 대우하자!

- 글쓴이는 ㉢이 ㉠과 ㉡을 비판한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글쓴이도 ㉢의 입장이다.  
(읽다 보면 알게 된다.)

2 인간은 동물을 음식, 의류 등으로 이용해 왔지만, 인간만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며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야생의 포식 동물 또한 피식 동물을 잔인하게 잡아먹는다. 피식 동물이 느끼는 고통은 도살에서 동물이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동물의 권리에 대한 침해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육식이나 실험 등이 고통 유발이나 권리 침해 때문에 그르다면, 야생 동물의 포식이 피식 동물의 고통을 유발하거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 또한 그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른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육식 등은 막아야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동물의 포식까지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예컨대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일일이 막는 것은 우선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다. 설령 가능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자연 질서를 깨뜨리므로 옳바르지 않다. 동물감정론과 동물 권리론이 야생 동물의 포식을 방지해야 한다는 과도한 의무까지 함축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그 이론을 비판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 해설

- 글쓴이는 포식동물(=사자)이 피식동물(=얼룩말)을 잡아먹을 때 얼룩말에게 고통을 유발하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 ㉡이 옳다면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은 무리한 요구를 함축하는 주장이므로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글쓴이는 ㉢의 입장에서 ㉠과 ㉡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3 동물감정론은 윤리 결과주의에 근거한다.** 이것은 행동의 올바름과 그름 등은 행동의 결과에 의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형적 윤리 결과주의인 공리주의에 따르면 행동의 효용, 곧 행동이 쾌락을 극대화하는지의 여부가 그 평가에서 가장 주요한 기준이 된다. 이때 효용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통의 총량을 차감한 쾌락의 총량에 의해 계산한다. **동물감정론이 포식 방지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는 지적에 대한 공리주의자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포식 동물의 제거 등을 통해 피식 동물을 보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쾌락의 총량보다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를 통해 유발될 고통의 총량이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동물을 이유 없이 죽이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으로 인간이 해야 할 바를 다한 것이며 동물의 행동까지 규제해야 할 의무는 없다.
- 4 하지만 공리주의를 동원한 동물감정론은 포식 방지가 인간의 의무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포식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더욱 수월해지고,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실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쾌락 총량의 극대화를 기치로 내건 동물감정론에서의 효용 계산으로 포식 방지의 의무가 산출될 수도 있다.

## 해설

- 3문단에서 ㉠은, 2문단에서 글쓰이가 한 공격에 대해 '응답'한다. 하지만 4문단에서 글쓰이는 다시 3문단의 '응답'을 재반박한다. 이 흐름에 주목하자.
- 3문단의 ㉠(공리주의) : 효용은 (쾌락-고통)의 총량으로 계산되는데, 사자를 제거해서 얼룩말을 보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쾌락의 총량보다 고통이 크다. 따라서 2문단의 비판은 부적절하다. ㉠은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함축하지 않는다.
- 4문단 글쓰이 :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은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쾌락-고통)의 총량을 극대화한다. 그러니 ㉠은 무리한 주장을 함축한다!

- 5 한편 동물권리론은 행동의 평가가 '의무의 수행' 등 행동 그 자체의 성격에 의거해야 한다는 윤리 비결과주의를 근거로 내세운다.** 전형적 윤리 비결과주의인 의무론에 따르면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자의 의무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동물권리론이 포식 방지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는 지적에 대한 의무론자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도덕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반면, 포식 동물과 같은 도덕 수동자는 그런 능력이 결여된 존재이다. 의무를 지니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도덕 수동자는 도덕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그런 의무를 지니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육식에서나 동물의 포식에서도 동물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동물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을 의무도 없다. 결국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 포식하는 것을 막을 인간의 의무 또한 없다는 것이다.
- 6 하지만 의무론을 동원한 동물권리론은 포식에 관련한 비판을 오해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포식 방지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그만 두게 할 의무가 있는지의 문제이지, 사자가 그만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재미로 고양이를 괴롭히는 아이는 도덕 수동자이니 그 행동을 멈춰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부모 또한 이를 막을 의무가 없다고 하겠는가?

## 해설

- 5문단에서 ㉡도, 2문단에서의 비판에 '응답'한다. 하지만 6문단에서 글쓰이는 다시 5문단의 '응답'을 재반박한다.

- 5문단의 ㉠(의무론) : 사자같은 포식동물은 도덕행위자가 아니라 도덕수동자이다. 따라서 ㉠은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것을 막아야 함을 함축하지 않는다.
- 6문단 글쓴이 : 지금 핵심은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을 인간이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인데, 사자가 그것을 그만두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여전히 ㉠에 따르면 인간은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지 못하게 방지해야 되는 것이므로,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함축하는 ㉠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 해설

② (O) ㉠은 인간이 도덕행위자라면 동물에 대한 의무가 있고, 도덕수동자라면 동물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본다.

### 오답 해설

- ① (X) 3문단에서 ㉠은 모든 고통/쾌락을 계산에 다 포함하고 있다.
- ③ (X) ㉢은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 ㉡을 비판한다. 결국 인간의 육식도 그러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④ (X) ㉠과 ㉡은 글쓴이가 '너네 주장은 야생동물의 포식금지의무를 함축해'라고 2문단에서 비판한 것에 대해 (3,5문단에서) 반대했다.
- ⑤ (X) ㉠은 포식방지(인간이 사자가 얼룩말을 못잡아먹게 하기)가 그른 이유는 쾌락보다 고통의 총량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본다.

## 2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분석

- ㄱ. (O)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가 불러오는 쾌락이 고통보다 크다면 그 행위가 옳다고 본다.
- ㄴ. (X) 인간의 기술 발전 수준이 올라가면,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의 범위는 넓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둘은 비례 관계이다.
- ㄷ. (O) 의무론은 5문단에 제시되었다. 의무론은 사자는 도덕수동자이므로, 인간은 피식동물을 사자로부터 굳이 구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물론 이에 대해 6문단에서 글쓴이는 재반박하지만, 의무론의 내용만을 고려한다면 이는 옳은 진술이다.)
- ㄹ. (O) 의무론은 윤리 비결과주의이다. 따라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가 아니라 행동 그 자체의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 22 [문제집]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 해설

- ① 6문단의 비판을 그대로 진술하는 선택지가 정답이다.